



본 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편집자 주-

해외석유정보

가격조정기능 구사하는 OPEC

OPEC은 2001년 9월 1일부터 100만b/d를 감산한다. 올해 들어 3번째, 총 350만 b/d 규모이다. OPEC 회원국 각료가 한자리에 모여 정식 총회를 열어 정한 것이 아니라, 전화상으로 '신속하게' 감산에 합의한 것이다. 원유가가 22~28\$의 Price band 하한을 10일 연속 밀돈 것도 아니다. 원유가가 하락할 기미를 보이자 과민반응을 보여 미리 손을 쓴 것인데, 원유가격 폭락을 급등으로 이끌어내면서 OPEC의 결속은 상당히 강해졌다. 배경에는 원유가격결정의 주도권 탈환을 위해 가격조정기능을 최대한 이용해 생산조정을 전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원유 spot가격은 벌써 반등 기미를 나타내고 있고, 성수기를 맞는 하반기에는 원유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OPEC의 7월25일자 공식발표에 따르면 100만b/d 감산후 10개 회원국의 새로운 생산상한은 2,320.1만 b/d 이다. 국별 감산량(괄호안은 새로운 생산상한)은 Algeria 3.2만b/d(74.1만 b/d), Indonesia 5.2만 b/d(120.3만b/d), Iran 14.6만b/d(340.6만b/d), Kuwait 8만b/d(186.1만b/d), Libya 5.4만b/d(124.2만b/d), Nigeria 8.2만b/d(191.1만b/d), Qatar 2.6만 b/d(60.1만b/d), Saudi Arabia 32.4만b/d(754.1만 b/d), UAE 8.8만b/d(202.5만 b/d), Venezuela 11.6만b/d(267만b/d)이다. 감산폭이 가장 큰 나라는 Saudi Arabia, 다음으로 Iran, Venezuela순인데, 이

3개국만 해도 전체의 60%에 해당된다.

OPEC이 감산을 단행한 것은 세계경제 침체에 의해 석유수요가 감소하여 원유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석유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쌓이는 등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표면화되어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다. Iraq가 7월10일부터 원유수출을 재개하고, 7월13일에는 IEA가 2001년의 세계석유수요 전망을 50만b/d 하향수정한 것도 가격 약세 재료로 작용해 원유가격 하락을 재촉했다.

OPEC이 도입한 Price band제도에서는 원유가격이 basket가격기준으로 10일 연속 22~28 dollar의 상하한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50만b/d 증 감산하기로 되어 있다. 작년 가을에는 Price band제도를 실제로 적용하여 50만 b/d를 증산했었다. 그러나, 이번은 원유가격이 하한선 근처까지 갔었지만, Price band의 하한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었는데 감산 발표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에는 평균 23.64\$/B이던 OPEC basket가격은 4월에는 24.64\$/bB, 5월에는 26.26\$/B, 6월에는 26.00\$/B까지 올랐지만, 7월13~19일에는 평균23.07\$, 20일에는 22.93\$까지 하락했다. 23일에는 23.50\$, 24일에는 23.46\$, 25일에는 23.78\$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OPEC은 8월 초순에 임시총회를 열어 원유가 대책을 협의하는 준비에 들어갔었는데,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전화로 연락을 취해 9월 감산을 급하게 결정했다고 한다. 총회의 모양을 갖추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속히 발표하여 announcement효과를 기대했

을 것이다. 총회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신속히 행동한 것은 OPEC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결속력을 배경으로 OPEC의 전략은 미묘히 변화하면서 기동성을 갖추어가고 있다.

생산조정에 자신감

원유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98년에는 Iraq를 제외한 10개 OPEC회원국은 2월 시점의 생산상한 2,698.7만b/d 에 대해 104회 총회에서는 4월부터 124.5만b/d, 105회 총회에서 7월부터 135.5만 b/d의 감산을 단행했지만 가격하락이 그치지 않아 basket 가격이 98년 12월에는 9.67 \$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99년 3월 107회 총회에서 4월부터 171.6만b/d 추가감산을 단행하자마자 원유가격은 반등해 4월에는 15\$, 7월에는 18.31\$, 9월에는 22.17\$, 12월에는 24.77 \$로 급등했다. 98년 4월부터 99년 3월까지의 3회에 걸친 총감산량은 431.6만b/d에 이른다.

원유가격 급등 양상은 2000년 들어서도 계속 이어져 3월에는 26.71\$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2000년 3월 109회 총회에서는 171.6만b/d 증산을 합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원유가격 급등 양상이 그치지 않고 6월에는 29.12\$로 올랐기 때문에 6월 110회 총회에서는 7월부터 70.8만b/d, 9월 111회 총회에서는 10월부터 80만b/d 추가증산을 단행했다. basket가격은 7월에는 27.94 \$로 다소 내렸지만, 8월에는 28.30\$, 9월에는 31.45\$, 10월에는 30.42\$, 11월에는 31.22\$를 기록하여 10일 연속 Price band의 상한을 돌파했기 때문에, 10월31일에는 Price band제를 발동하여 50만b/d를 증산했다. 2000년에 실시한 4회의 증산량은 총 372.4만b/d인데, 98~99년의 총감산량보다는 적다.

그러나, 2000년 12월 basket가격은 24.13 \$로 지

난달보다 7 \$ 이상 하락했다. 이 때문에, 2001년이 되자마자 OPEC은 다시 감산으로 전략을 바꿔, 올해1월 113회 총회에서 2월부터 150만b/d, 3월 114회 총회에서는 4월부터 100만b/d 추가감산을 단행했다. basket가격은 1월 24.06\$, 2월 25.41\$, 3월 23.70\$, 4월 24.38\$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6월 115회 총회에서는 생산상한 2,420.1만b/d 유지를 정하고, 7월초에 열린 116회 총회에서도 생산상한 유지에 합의했다. 여름철의 휘발유, 겨울철의 난방유 성수기를 앞두고 Iraq원유의 수출동향 여하에 따라서는 생산상한 확대도 간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100만b/d의 추가감산을 단행한 것이다. 이 결과, OPEC이 10개 회원국의 새로운 생산상한은 2,320.1만 b/d까지 축소되었다. 이것은 2000년 4월의 제1차 증산 당시를 밑도는 생산수준으로 앞으로의 원유시장 반응이 걱정이다.

OPEC이 감산을 단행한 것은 Iraq가 7월10일부터 원유수출을 재개하고, 세계경제 침체로 올해 석유수요가 둔화할 전망이 잇달아 나오는 등 석유수급환경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유나 제품재고도 예상보다 늘어나고 있다. 5월 미국의 원유수입량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940만b/d를 기록했다. 석유선물시장이 콘탱고였기 때문에 석유회사가 원유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다. 휘발유 생산량도 과거 최고인 860만b/d를 기록했지만, 수요는 반대로 작년 실적을 1% 밑돌아 휘발유 재고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기회복 여부나 여름철의 혹서, 겨울철의 한파 등 계절요인 여하에 따라 석유수요가 늘어 사정이 급변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OPEC은 올해 들어 6월 이후 매월 모임을 가져왔고 9월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가격조정기능을 계속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생산조정을 통한 원유가격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가격의 향방

OPEC은 98년 당시의 원유폭락으로부터 3차례의 감산을 통해 원유가를 원상복귀시켰다가 그 후의 가격폭등으로 4차례의 증산으로 대응했다. 근래 원유 가격은 크게 변동했지만, 그 동안의 '성공경험'을 통해 OPEC은 원유 증 감산에 의한 가격 control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올해는 이미 3차례 감산했지만, 목표가격을 Price band하한인 22\$에서 25\$ line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듯 하다. 따라서, 올해 후반에 원유가가 현재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OPEC의 감산결정에 대해 日石三菱(닛세끼미쓰비시)의 사장은 Saudi Arabia를 비롯한 OPEC은 basket가격 25\$ 유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격은 basket가격 기준으로 25\$를 축으로 추이한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 岡部(오카베) 일본석유연맹 회장도 OPEC이 목표로 삼고 있는 가격수준을 25\$ 이상으로 관측한다. OPEC의 결속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원유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OPEC의 이러한 원유가격 전략에 담합이 허용되지 않는 소비국의 석유기업이 국내 제품시세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지가 앞으로의 큰 과제이다

〈Oil Report, 2001. 8. 6〉

일본석유연맹의 환경 앙케이트 결과

일본석유연맹은 2년전부터 Internet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반소비자나 자가운전자의 의견을 앙케이트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발표해오고 있다.

2000년도에는「환경」,「주유소」,「세금」,「동유」,「연료전지」,「에너지 절약」문제에 관해 Web상에서 여섯차례의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는데 예상을 웃도는

참여율을 기록했다.

2001년도 첫번째 앙케이트는 5월에 실시되었는데, 주제는 「환경」문제이다. 앙케이트 기간이 짧아 유효 회답자는 8,552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99년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된 8회째까지의 앙케이트 회답자수는 1회 평균 5,000명 남짓 되었기 때문에, access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본석유연맹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나」라는 설문1에서는 처음 방문이 76.5%, 2~4회가 20.4%, 5회 이상이 3.1%로 4분의 1가까이가 '단골손님'이었다. 「지금 가장 관심있는 환경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설문2에 대한 회답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지구온난화 등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39.0%, 이어서 가정에서의 폐기물 생활배수가 16.7%,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대기오염문제가 16.5%, 자연환경 보호가 14.4%, 산업폐기물이 11.5%, 공장에서의 배기가스 배수가 1.8% 순이었다. 설문 3인 「지구온난화대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는 life style 재검토, 즉 철저한 에너지절약이 43.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에너지 도입촉진이 39.8%, 석유 등의 에너지의 효과적인 이용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기기의 개발촉진이 11.5%이다. 그 나머지는 「모르겠다」가 3.0%, 원자력 도입촉진은 1.6%에 지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방지대책의 재원확보를 위해 탄소세나 환경세도입 움직임이 정부부처내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설문4에서는 과반수인 50.9%가 우선은 행정개혁이나 에너지 절약을 우선해야 하며 인일하게 새로운 세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고 있다. 이어서 21.6%가 도입시에는 휘발유세 등 석유제세를 재검토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18.7%가 환경의 혜택을 입는 것은 국민전체니까 환경보전의 대책재원은 국민전체가 조금씩 부담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라

면 휘발유 등의 석유가격이 더욱 오르더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강경파는 5.2%에 지나지 않았다. 환경관련 의 key word로 알고 있는 말을 고르라는 설문5에서 회답수가 많은 것은 가전제품 재활용법, diesel차 규제조례, 연료전지, 교토회의정서, 환경세 순이었다.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대책으로는 1위가 쓰레기분리수거, 2위가 에너지절약, 3위가 양복이나 가구 등의 재활용, 4위가 환경친화적인 상품 구입이다.

이러한 앙케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life style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에너지절약 의식이 높고, 일반 소비자들은 원자력의 도입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양방향 정보 의견교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Internet의 보급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의견을 더욱 존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il Report, 2001. 6. 18〉

유럽, 경유 이용 차량 급증

일본에서는 불황과 함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경유 이용차량이 급감하는 경향에 있다. 한편,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는 경유 이용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2000년도말 경유 자동차 보유대수는 1,180만대(전년대비 3.5% 감소)로 감소율이 확대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①1997년경은 공공사업 축소에 따른 특수용도차 감소가 선행되었고, 그 후 ②경기후퇴나 물류합리화 진전으로 트럭 버스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③1998년 이후 승용차에까지 감소세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유승용차는 1997년말에 507만대, 금년 3월말에 425만대로 이 기간 동안 80만대(16%)가 감소했는데, 최근 환

경규제 강화로 감소율이 확대되고 있어 경유판매량은 지난 4월 까지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승용차 신차 등록대수에서 차지하는 경유차량 비율은 독일이 1995년의 14.5%가 2000년에는 30.4%로 배로 증가했고, 이탈리아에서는 9.7%에서 33.6%로,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50%, 프랑스는 금년 1~4월에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해 현재의 일본5%와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EU의 지구온난화논의 결과, 디젤차량의 CO2 배출억제를 1991년~2005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개혁을 실시했다. 경유이용차량은 기술 향상으로 ①주행 연비성능, ②소음, ③배기가스면에서 휘발유차에 못지 않는 수준으로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게다가, 경유세를 낮게 억제해 소비세는 '환경' '가격' 면에서 만족한 수준을 유지해 경유차량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배출물에 '발암' 성을 의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어, 경유차량 급증의 흐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순간석유정책, 2001. 7. 10〉

수퍼메이저의 2000년 영업실적

ExxonMobil

Exxon-Mobil의 순익은 99년의 79억\$에서 2000년에는 2.2배 이상 증가한 177억\$를 기록했다. 매출도 825억\$에서 25.2% 증가한 2,284억\$로 증가했다. 이렇게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는 상류부문에서 65억\$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류부문의 2000년 실적은 99년에 비해 이익이 늘어나긴 했지만 98년 수준에는 약간 못 미쳤다.



상류부문 순익은 99년 대비 2.1배 늘어난 123억 6,900만\$로 그 내역은 미국내에서 45억4,500만\$, 미국지역 외에서 78억2,400만\$를 기록했다. 상류부문의 매출은 48.3% 증가한 214억4,300만\$인데 미국 국내에서 56억6,900만\$, 미국외에서 157억7,400만\$이다. 하류부문에서는 순익이 34억1,800만\$를 기록했다. 99년은 98년에 비해 격감했기 때문에 증가율이 2.8배에나 미치지만, 상류부문의 순익과 비교하면 훨씬 적다. 내역을 보면 미국 국내가 15억6,100만\$, 미국 외에서 18억5,700만\$이다. 하류부문 매출은 1,885억6,300만\$, 미국 국내가 560억8,000만\$, 미국 외에서 1,324억8,300만\$를 기록했다. 석유화학부문의 순익은 11억6,100만\$로 99년 대비 14.3%의 이익감소에 머물렀다. 미국 국내가 6억4,400만\$, 미국 외에서 5억1,700만\$이다. 매출은 175억100만\$로 미국 국내에서 81억9,800만\$, 미국 외에서 93억300만\$를 기록했다. 기타 부문의 2000년 순익은 7억7,200만\$로 98년, 99년의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 부문 매출은 9억3,200만\$이다. Exxon-Mobil 전체 순익은 69.8%를 상류, 19.3%를 하류부문에서 벌어들였다.

BP

BP Amoco의 순익은 2000년에는 99년 대비 2.7배 늘어난 180억\$에 달했다. 매출은 99년 대비 77.2% 증가한 1,481억\$를 기록했다. BP Amoco는 상류부문, 하류부문 모두 99년 대비 큰 폭의 증익을 기록했다. 단, 상류부문 증익은 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3.9배에 달하지만, 하류부문은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순익 규모도 상류부문은 하류부문의 3.5배나 된다.

부문별로는 상류의 탐광 개발부문 순익은 141억 3,100만\$로 99년 대비 2.4배나 증가했다. 매출은 141억5,500만\$, 99년과 비교하면 56.1% 증가했다.

전력 가스 부문의 2000년 순익은 1억8,600만\$로 99년 대비 3,900만\$의 감소했다. 매출은 157억3,500만\$로 99년 대비 108억5,600만\$ 늘어났다. 정제 판매부문 순익은 40억700만 \$로 99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매출은 1,068억9,200만\$로 1.8배 늘어났는데, 하류부문에서도 매출증가율보다 이익증가율 훨씬 높다. 화학부문 순익은 5억4,800만\$로 99년 대비 27.9% 증가했다. 매출은 110억3,100만\$로 21.9% 증가했다. 기타 부문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2000년은 마이너스 8억9,600만\$로 99년부터 적자폭이 5억2,200만\$ 축소되었다. 기타 부문 매출은 2억4,900만\$로 99년부터 5,000만\$ 늘어났다. 2000년의 순익 전체로는 78.6%가 상류부문, 22.3%가 하류부문에서 벌어들였다.

Shell

Shell의 순익은 2000년에는 99년 대비 67.9% 증가한 123억\$로 증가율은 Exxon-Mobil이나 BP Amoco 보다 작다. 매출은 41.6% 증가한 1,491억\$를 기록했다. Shell도 상류부문에서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98년에는 상류부문은 2억4,700만\$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99년에는 45억\$의 흑자로 전환되어 2000년에는 99억\$로 순익이 배로 늘어났다. 석유제품 부문은 매출이 99년 대비 43.6% 증가한 1,040억\$로 증가했는데, 순익은 99년의 17억\$ 대비 18억\$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하류부문보다 상류부문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2000년에는 상류부문 순익은 98억

8,000만\$로 미국 국내가 33억6,000만\$, 미국 외에서 65억2,000만\$, 매출은 134억6,800만\$를 기록했다. 가스 전력부문 순익은 마이너스 1억8,800만\$를 기록했고, 미국 국내가 마이너스 7억2,000만\$, 미국 외에서 플러스 5억3,200만\$, 매출은 159억9,100만\$이다. 석유제품부문 순익은 17억9,800만\$인데 미국 국내가 6,800만\$, 미국 외에서 17억3,000만\$를 기록해 미국 외에서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은 1,040억200만\$를 기록했다. 화학부문의 순익은 99년 대비 7.5% 감소한 3억700만\$로 이익이 감소했다. 미국 국내가 마이너스 1억100만\$, 미국 외에서 4억800만\$, 매출은 152억500만\$이다. 기타 부문 순익은 마이너스 3,700만\$로 98년, 99년과 같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4억8,000만\$이다. Shell 전체 순익중 80.5%가 상류, 14.7%가 하류부문에서 벌어들였다. ♣

<Oil Report, 2001. 8. 20>

Exxon-Mobil의 부문별 수익상황(백만\$)

	연도	순 익			총 수 입		
		미국내	미국외	계	미국내	미국외	계
상류부문	1998	850	2,502	3,352	3,017	10,493	13,510
	1999	1,842	4,044	5,886	3,104	11,353	14,457
	2000	4,545	7,824	12,369	5,669	15,774	21,443
하류부문	1998	1,199	2,275	3,474	36,642	100,957	137,599
	1999	577	650	1,227	43,376	109,969	153,345
	2000	1,561	1,857	3,418	56,080	132,483	188,563
석유화학부문	1998	792	602	1,394	5,940	7,649	13,589
	1999	738	616	1,354	6,554	7,223	13,777
	2000	644	517	1,161	8,198	9,303	17,501
기 타	1998			▲146			929
	1999			▲557			950
	2000			772			932
합 계	1998			8,074			165,627
	1999			7,910			182,529
	2000			17,720			228,439

BP의 부문별 수익상황(백만\$)

수익	매출			수익	매출		
	1998	1999	2000		1998	1999	2000
부문별				부문별			
탐광·개발	3,672	5,872	14,131	탐광·개발	12,216	9,070	14,155
전력·가스		225	186	전력·가스		4,879	15,735
정제·판매	2,958	1,506	4,007	정제·판매	46,625	60,369	106,892
화학	1,143	429	548	화학	9,312	9,050	11,031
기타	▲357	▲1,418	896	기타	151	198	249
회계	7,371	6,614	17,976	회계	68,304	83,566	148,062
지역별				지역별			
영국	1,892	1,874	3,785	영국	19,662	25,817	34,430
기타유럽	1,355	909	1,994	기타유럽	5,123	5,332	18,642
미국	3,142	2,018	7,755	미국	31,945	37,405	70,255
세계기타	982	1,813	4,442	세계기타	11,574	15,012	24,735
합계	7,371	6,614	17,976	합계	68,304	83,566	148,062

Shell의 부문별 수익상황(백만\$)

	연도	순 익			총 수 입		
		미국내	미국외	계	미국내	미국외	계
상류부문	1998	▲1,523	1,276	▲247			8,119
	1999	1,442	3,077	4,519			9,474
	2000	3,360	6,520	9,880			13,468
하류부문	1998	▲722	373	▲349			7,798
	1999	32	221	253			9,729
	2000	▲720	532	▲188			15,991
석유제품	1998	172	1,856	2,028			64,738
	1999	65	1,622	1,687			72,450
	2000	68	1,730	1,798			104,002
화학부문	1998	▲369	▲349	▲718			12,272
	1999	172	713	885			12,886
	2000	▲101	920	819			15,205
기타	1998			▲40			767
	1999			▲35			827
	2000			▲37			480
합계	1998			674	16,603	77,089	93,692
	1999			7,309	17,306	88,060	105,366
	2000			12,272	26,089	123,057	149,146